

대학생의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고찰

박세정* · 고강호**

요 약

미래사회에서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교육이 화두가 되어왔다. 끌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미래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에 '창의성'과 '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창조적 인적자본'에 미래의 성장 동력이 있다. 결국 국가의 경쟁력은 창의적 인재의 경쟁력이며, 기업 등 인재의 최종 수요자도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은 바람직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과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가의 경쟁력을 창의적 인재의 성장이라 보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학교의 다양화,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등은 교육현장에서의 창의성과 인성을 제대로 교육하고자 하는 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이었다. 하지만 다양화를 시도했던 학교가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교육의 실패, 인간성의 부재 등으로 대두된 인성교육의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을 살펴봄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인성교육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첫째, 대학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대학에서 실시되어야 할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의 연구문제 내용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 대학생, 인성, 인성교육과정

논문 투고일 : 2014. 1. 20.

최종심사일 : 2014. 2. 16

게재확정일 : 2014. 2. 24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 · 보육과 조교수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 · 보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Park, Se Jeong, Dept. of Social Welfare-Childcare,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170 Hyeonchung-ro, Nam-gu, Daegu, 705-703 Korea. E-mail : sezzi721@ync.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시류를 보면, 이공계에 대한 취업선호도가 매우 높고, 대그룹의 채용에서도 이공계 출신의 진출영역이 예전 인문사회계열 쪽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스펙강화, 직무분석, 토익점수 등의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제로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인성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지식기반사회,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사회 등으로 정의되는 미래사회에서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교육이 화두가 되어왔다. 창조적이고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미래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에 ‘창의성’과 ‘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창조적 인적자본’에 미래의 성장 동력이 있다. 결국 국가의 경쟁력은 창의적 인재의 경쟁력이며, 기업 등 인재의 최종 수요자도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은 바람직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과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인성을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5). 이제는 인성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말은 학업성취도와 같은 지적능력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능력인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며, 시험문제가 교육과정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됨으로 양성하는 학교가 인성교육의 사각지대가 되어있다. 이에 대해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고, 2015년 7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져 시행하게 되었다. 교육부장관도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입시부담을 덜고 유치원부터 생애 발달 단계에 맞춰 인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성진흥법을 만든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인데,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것을 핵심가치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의 경쟁력을 창의적 인재의 성장이라 보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학교의 다양화,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등은 교육현장에서의 창의성과 인성을 제대로 교육하고자 하는 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이었다. 하지만 다양화를 시도했던 학교가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결국 입시위주의 경쟁사회에서 인성보다 성적에 치중하게 되고, 가정에서조차 자녀수가 적고 맞벌이 부부와 결손가정 증가로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역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연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5세 누리과정을 비롯하여 유아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다 큰 대학생들에게 무슨 인성교육이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대학은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 및 능력, 그리고 품성을 가진 반듯한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대학생도 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홍득표, 2012). 더불어 기업에서도 인성을 가진 인재를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서도 인성, 직무태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통해 인성교육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에 본 연구는 도덕교육의 실패, 인간성의 부재 등으로 대두된 인성교육의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을 살펴봄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인성교육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질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셋째, 대학에서 실시되어야 할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인성과 인성교육의 의미

인성(人性)은 사람의 성품으로 인간성, 인격, 성격 등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daum 사전).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말하는 성품이나, 개인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는 인성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성의 영역으로 개념을 살펴보면, 개인적 인성으로 가치관, 근면성실, 자아확립, 예절 및 에티켓, 그리고 효도, 경애 등이 있으며, 조직, 사회, 국가적 인성으로는 대인관계, 인간존중, 타인배려, 공동체 의식, 봉사심, 팀워크, 리더십, 준법성, 국가애, 인류애 등이 있다. 특히, 인성이 인간의 품격 즉, 됨됨이를 뜻한다면, 인성교육은 인격교육이 된다. 왜냐하면 인격은 사람됨의 자격으로서, 즉 ‘사람됨’의 가치를 표명하는 용어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품성이나 덕목, 마음씨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격은 다소 가치 중립적인 성격 개념에 사회적, 도덕적 규범 내지 가치체계를 부여한 개념으로써 도덕적 선량함이나 품위 있는 행동 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인격교육으로서 인성교육은 인간의 가치로운 품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제반 조치를 의미하여 따라서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인성의 그 주요 목표는 인격형성에 있게 된다(이인재, 2001).

2009년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채용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성(69%), 실무능력(63%) 등으로 나타났고, 2008년도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인성과 가치관이 37.8%로 나타났고 신입사원의 핵심덕목 조사(에듀월, 2010)에서도 기본 인성이 57.7%, 팀워크능력이 22.9% 등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면접 등에서 신입사원의 핵심덕목으로 인성이 중요한 요소로 높게 평가되는 것은 인성의 영역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일은 다른 어떤 자질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됨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취업이나 경력개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며, 전공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필요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성을 이루는 덕목으로는 공동체 의식과 협동, 관용, 진실, 참여, 존경, 갈등해결, 독창성,

일관성, 지속성, 용기, 근면이 있으며, 이호중(2001)은 기본생활영역, 개인생활영역, 공동체생활영역으로 나누었다. 또한, 조연순과 이영(1998)은 준법, 봉사, 협동, 책임감, 정의감, 애국심, 환경보호의 민주시민의식, 이타주의, 정직, 예의범절, 효, 사랑, 배려, 신뢰인 타인존중의식, 자신감, 자아존중, 자기표현, 자기통제, 직업윤리의 자기존중의식으로 분류하였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1994)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효도 및 경애, 공동체의식으로 나누었다. 기본생활습관은 규칙생활, 정리정돈, 청결위생, 물자절약으로, 자아확립은 정직, 근면, 성실, 자주, 절제 그리고 효도 및 경애는 기본예절, 효도, 경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은 협동, 준법, 인간존중, 배려, 책임, 봉사, 리더십, 질서, 정의감, 환경윤리, 정보윤리, 인류애가 인성의 덕목으로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인성은 매우 포괄적이며 통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성은 인간의 바른 성품,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으로 인간이 도달해야 할 누구나 바르다고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인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인성교육은 심성교육, 성격교육, 인격교육, 사회화과정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인간 및 사회관계에서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는 문제를 감안하면, 부드럽고 원만한 심성을 기르도록 하는 경험적인 심성교육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격교육은 바람직한 성격형성과 비정상적인 성격이 정상적이 되도록 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학 대사전, 1989). 그리고 인성이 인간의 됨됨이를 뜻한다면, 사람됨의 가치를 표명하면서 도덕적 선량함이나 품위 있는 행동 등을 강조할 수 있다. 인격교육의 경우 인간의 가치로운 품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제반 조치를 의미하여 그 주요 목표는 인격형성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인성을 사회화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문화유형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고 그 문화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가치관, 신앙체계, 행위양식 등이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한 부분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이원희 외, 1999).

이상으로 인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인성교육 정의를 살펴본 바, 이러한 각각의 교육들이 인성교육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인성교육은 마음의 바탕을 교육하는 것으로 지(知), 정(情), 의(義)를 조화롭게 발달되도록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지(知), 정(情), 의(義)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마음의 교육이며, 자아를 실현시키는 자아교육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도덕교육이라 할 수 있다. 즉, 인성교육은 넓은 의미의 도덕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2. 인성교육의 원리 및 결정요인

학교 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의 목표는 인격을 갖춘 인간을 양성해내는 것이 1차적 목표이며, 궁극적으로는 성인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관계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Hiele & Ziegler(1981)는 인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속에 공통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속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성이란 한 개인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그 어떤 것이다. 이것이 인성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다. 둘째, 인성은 가설적인 개념이다. 인성에 의해서 행동이 조직되며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인성을 추상할 수 있다. 셋째, 인성은 개개인에게 고유하다. 개인차는 인성의 차이 또는 인성 특성들의 조합의 차이에서 밝힐 수 있다. 넷째, 인성은 변화하는 것이다.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성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 각기 다른 정의는 그들의 인성 이론을 그대로 반영한 인성 이론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경영에 있어 인성(character)은 개인의 능력(competency)과 더불어 사람의 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는 점에서 인성의 적극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의 원리로 교과 통합의 원리가 있다. 지적활동과 도덕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활동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교육 중심의 교과과정에서 인성교육 영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또한 가치 통합의 원리로서 이는 공간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등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모든 시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속성의 원리가 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꾸준히 습관화하여 내면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성 프로그램을 할 때도 지속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보다 폭 넓게 확대되는 것이 관계성의 원리이다. 바람직한 관계야말로 인성교육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이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안내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강조한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과의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의 형성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이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고 결국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율성의 원리와 함께 실천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 체험의 원리가 있다. 실천위주의 체험활동은 전공, 특별활동, 대학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원리를 포함한 인성교육의 여러 덕목들을 습득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내면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리와 함께 인성을 이루는 결정요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성의 결정 요인 중 가장 분명한 것은 타고난 체질과 정신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신장, 체중, 외모 등의 체질적인 특성의 사회적 의미는 문화적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반드시 고정적인 인성만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생물학적인 요인 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고 서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 결정요인은 자연 환경이다. 지리적 환경이나 기후적 환경,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이런 자연환경의 요소들은 인간의 인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자연 환경의 요인 역시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개인 고유의 경험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의 생활사를 가지고 있다. 지위역할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같은 지위라 해서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는다. 문화라는 것은 모든 개인들의 경험들을 같이 포용함으로써 표준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규격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결정요인은 문화적인 요인으로,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행위들에 유형을 제공하고, 한계를 정해 준다. 사회집단이나 문화에 따라 각자 성원들의 인성에 규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사람, 한국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 등 각각은 다른 것과 구분될 만한 공통적인 유형이 있음을 발견한다. 개인이 독특한 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각기 다른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에 따라 반응하며, 인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이 접하고 있는 문화는 인성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박연수, 1997).

III. 인성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1. 대학생의 인성에 대한 인식 및 인성교육의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자료(2013)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모두 '낮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낮다(낮다, 매우 낮다)'는 응답(전체 72.4%, 학부모 65.7%)이 '높다(매우 높다, 높다)'는 응답(전체 2.5%, 학부모 3.8%)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높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학부모 응답자가 더 많았으며, '낮다, '매우 낮다'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동안 초등학교에서부터의 인성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학생들의 인성발달에 기여한 바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도덕성 상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을 보면 인성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조사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인성관련 조사는 고등학교에서의 자료가 대부분이며, 대학에서의 인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대학교에서의 인성 관련 프로그램은 최근 채용과정에서 학벌 등의 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면서 면접과 함께 인·적성검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중요한 잣대로 여겨지고 있다(영남이공대학, 2010). 기업에서는 채용 분야에 적절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그 기업의 문화와 특성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능력도 뛰어나야하지만 좋은 성품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인·적성검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협조성, 책임감, 대인관계능력, 적극성, 실행력, 표현력, 태도, 자기계발능력,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 상황대처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기업문화나 분위기가 자신의 스타일과 잘 맞는지,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에서는 취업과 결부한 인성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의 취업이나 경력개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며, 전공지식이나 기술 습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정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모곤, 김미호, 우종선, 2013).

최근에 대학에서는 입학전형 및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대는 2014학년도부터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를 탐방해 현장의 인성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학교의 프로그램 내용과 성과, 실천사례 등을 평가항목에 적극 반영했으며, 면접 평가지표 항목은 크게 인성(공동체 의식, 학교생활의 성실성, 역경극복, 타인배려), 다문화역량(개방적 태도,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코칭역량(지원동기, 리더십), 문제해결역량(학업성취도, 교직원 관련 활동 다양성 및 우수성, 비판적 사고, 창의성), 소통역량(의사소통능력, 태도), 기타(교양수준) 등이다. 면접에서는 교사로서 지녀야 할 사명감, 헌신, 사회공헌 의지, 창의성 등을 평가했다.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시도 일부 제시해 가장 공감하는 표현과 이유를 질문했다. 2016학년도 수시전형은 190명, 정시전형에서 19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3학년도 입시부터 수시와 정시의 모든 신입생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있다.

포항공과대학교는 23명의 입학사정관과 교수가 현재 능력과 미래 가능성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1단계 서류평가는 교과영역과 비교과 영역(인성교육)의 별도 전형이다. 전입사정관이 2인1조로 구성, 학과별 블라인드 평가로 3배수 내외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2단계 면접평가로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개인의 품성과 역량을 확인하는 잠재적 평가면접과 사고력, 추론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의 역량을 확인해 지원학과에서 전공적합성면접이 이뤄진다. 23인이 합의되지 않을 때 토론으로 결정한다. 불가피한 경우 교사에게 직접 전화해 질문도 한다.

한동대학교에서는 2015학년도 인성 관련 평가항목으로 출결, 인성관련 수상, 교사 의견, 봉사내용 및 시간, 공동체 내 리더십 등을 제시했다. 사례로는 ‘사회 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으로 A군과 ‘농어촌학생전형’ B군을 들었다. A군은 전남 지역 전교생 50여명의 도서벽지 학교 학생이었다. 내신 성적 2.4등급으로 학생회장, 학급반장 등의 리더십 활동이 우수하고 기타연주, 수필, 편곡 등 창작활동, 독서활동이 100권 이상 됐다. B군은 충남 농어촌지역의 일반고교에 전과목 3.4등급(영어교과는 2등급) 학생이었다. 요양원,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봉사활동과 축구, 족구 같은 각종 체육활동에 적극적이었다. 한동대는 당시 수시전형 80%, 정시전형 20%로 학생을 선발했다.

한양대는 학생부전형에 합격한 조현욱 군의 예를 들며 ‘학생부 100%’ 선발을 강조했다. 조군은 3학년 학생부에 ‘자폐 성향의 친구를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다’고 적힌 단 한 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발됐다. 특목고 출신도 아니고 내신도 중하위권이지만 학교생활 중 대입준비가 자연스레 이루어진 케이스다.

인성교육으로 자리매김한 서울여자대학교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나누어 시행했다. 면

접은 개별면접과 발표면접으로 나누었다. 개별면접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했던 경험, 어떤 일을 잘 해냈던 경험에 대해 물었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해냈는지,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희생하거나 손해를 감수한 부분을 질문했다. 발표면접은 ‘여행을 앞두고 지도를 준비하려고 한다.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지도를 검토하고 여행, 목적, 성격, 일행 등 자신이 가려는 여행의 계획을 간략하게 제시한 뒤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평가 기준은 각 지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의 강점과 제약조건 등을 인식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분석하는 능력이 있는지 등이었다. 인성평가가 적용된 수시전형으로 정원의 58.7%를 선발했다(인성시대, 2015).

현재는 학교 스스로가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대학에서의 전공지식 및 기술 습득은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학전형에서부터 졸업 및 취업과정에서 대학의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식의 인성프로그램보다 인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재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인성교육의 문제점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인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장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인성교육이 단절되고 대학은 어디서부터 또는 어느 영역까지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많은 혼란과 고민을 하고 있다.

이인재(2000)는 인성교육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와 학업성적 우수자 중심의 줄 세우기식 교육풍토가 조성되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건전한 인성발달이 무시되어 왔다. 공부 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즉,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동시에 다른 친구들의 삶도 존중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교육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부족과 교육내용의 문제이다. 항상 인성교육이 매

우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학생들의 사회성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시간적 할애나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과교육활동과 기타 활동에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인성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도덕, 윤리, 사회 등의 영역은 교사들의 관심부족으로 상대적 등한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지지해야 할 외적 환경의 유해성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의 역기능이 심각하다.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인해 자녀 위주의 생활양식이 이기적인 인간을 키워내고 있다. 자녀들의 바른 인격함양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가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기본습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무용지물인 것이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 대중매체의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공세 등은 올바른 판단에 유해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인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양심, 도덕적 수치심, 죄책감 등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소통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점점 인간과의 관계형성의 기회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취업을 위한 면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모의시험 등의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문을 통과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점과 상대방과의 언어를 통한 대화를 들 수 있다. 대화란 동등한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해의 조건을 제대로 음미하는 것이 대화의 출발이자 전부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학은 이미 조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존재에 대한 밑바탕이 제대로만 형성된다면 나머지는 상황에 적합한 추론에 따른다. 상식적인 삶이 지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에게 수학적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지식 및 경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완전한 양보 및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성의 출발은 대화를 전제로 생각할 수 있다. 대화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 인생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삶의 지혜를 근본사상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존재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생의 의미를 가치 있게 볼 때 태동된다(교육부, 1998).

IV. 대학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인성이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와 태도, 그리고 행동의 특성’이라고 정의되고 있어, 인성교육이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개개인이 가지는 사고, 행동, 태도 특성을 더 바람직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가치로운 품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제반 조치를 인성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가 길러야 할 인간상은 전인적 인간으로 가장 인간적이며 동시에 가장 사회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합의를 갖게 된다. 현 정부는 창의적 인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창의력은 새로운 생각을 창출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의성의 발현은 개방성, 다양성, 부동 의(不動意) 자유가 허용되는 풍토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실질적인 선진국의 과학 기술, 예술, 기업, 정책 및 사상에서의 발전은 창의력 없이 무조건적인 모방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해결을 모색한다면 보다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대학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양과목을 통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학에서 자율적인 인성프로그램으로는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교양필수 과목 및 봉사 등의 의무 수업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업 시간에 알게 된 인성교육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하교시간,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운 가치를 실제로 경험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자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체험하는 것과 분위기가 학생들의 인격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인재, 2001).

둘째, 초·중등단계에서 배양된 창의성과 인성이 대학에 진학해서도 유지·발전·완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사회봉사와 참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 과반수는 초·중·고교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수준이 낮으며,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1천8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2 교육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1%가 초중고생의 인성과 도덕성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도 49.4%가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고교에서 중시해야 할 교육으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며 “학

교폭력 역시 학생의 인성·도덕성 강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mbc news, 2013년 2월 4일자). 이는 대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가치나 규범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더욱 지지받고 통용되어, 오랫동안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에서 내면화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mbc news 2013년 2월 4일자). 대학의 사회봉사와 참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은 사회경험을 축적하고 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배려하는 리더십을 배양하고, 국가와 사회는 대학과 대학생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의 공익증진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을 종래의 ‘교육·연구’ 중심에서 ‘교육·연구·봉사’로 확대하여, 대학의 사회봉사와 참여는 부가적인 사안이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의 필수요건이라는 인식과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전공과 연계된 사회봉사와 참여, 소외·취약계층 교육지원, 지역학교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공학·의학 등 학생들의 특기와 전공에 따른 수준 높은 사회봉사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단과대학별로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봉사 참여 과목을 개설하고, 우수 대학생들이 소외계층이나 낙후지역 초중등학생의 교과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대학별 멘토링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과중점학교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학과 협력이 필요한 지역 초중등학교에게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 편성, 연수, 강사 지원, 교육자료 개발 등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대학의 역량은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더불어 사회봉사 참여 프로그램 운영, 전담조직 설치 등 대학의 봉사역량도 대학정보공시 및 정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다(이진규, 2010).

셋째, 인터넷윤리에 대한 인성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쌓여 인성이 형성되듯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인터넷윤리도 생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어린아이들일수록 인터넷을 시작할 때 올바른 사용법과 습관을 길러야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대학에서 훨씬 많은 활용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디지털 양심’을 심어야 하는 것 등이다. 또한 맛집에 갈 때, 옷을 살 때,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한다. 말 그대로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인터넷에 묻는 ‘인터넷 의존 시대’다. 인터넷은 좋은 정보를 공유·확산하며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존재다. 그러나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많다. 자살방법, 폭탄제조법, 음란물 등 유해 정보도 널려있다.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가 그래서 탄생했다. 협의회는 인터넷윤리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 건강한 네티즌을 양성함과 동시에 밝고 명량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정진욱 성균관대 교수는 “인터넷에서는 아날로그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윤리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선한 동기였다면 문제 삼지 않지만 인터넷에서는 동기 못지않게 행동의 결과 또한 중요하다”며 “무심코 사용한 소프트웨어, 한 줄의 댓글이 수백, 수만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정진욱 교수는 “1:1 다툼은 ‘권총’, 신문·방송을 통한 비판은 ‘대포’에 비유한다면 인터넷에서의 공격은 ‘핵무기’에 해당한다”며 “악용 시 위력은 엄청난데도 관리나 책임에 대한 조치는 경미할 뿐만 아니라 정보 공급자의 필터링이나 소비자의 자기방어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개발한 것이 IEQ(Internet Ethics Qualification)다. 일종의 인터넷윤리 자격증으로 등급은 지도사, 관리사 1·2급으로 나뉘어 발행된다. 지도사급의 경우 사회 전반에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사급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주관하며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지난해 응시한 5000여 명 중 초·중·고·대학생이 37%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이밖에도 협의회가 개발한 인터넷윤리 교재는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사이버·교양수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인터넷윤리 논문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또 협의회 홈페이지(iecoin.or.kr) 자료실에는 초·중·고·대학별 인터넷윤리 교육 자료가 탑재돼 있어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 가능하다. 정 회장은 “매일 쓰레기더미에서 노는 아이들의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듯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인터넷 공간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밝은 인성도 기를 수 있다”며 “공학, 인문학, 교육학 등 수많은 분야의 연구진이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일인 만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교닷컴, 2012).

최근에는 대학교의 인성전형을 위해 착하게 보이도록 지도해주는 학원의 성장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만 인성교육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대학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및 부모, 교직원 등의 구성원들 대상의 인식조사와 대학마다의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현황, 효과 등에 대한 양적인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로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8). **이제는 행동이 달라지는 인성이 필요합니다**. 수원: 문성사.
- 교육학 사전 편찬위원회(1989), **교육학 대사전**. 교육서관.
- 김모곤, 김미호, 우종선(2013). **대학생활설계**, 서울: 공동체.
- 김은진(1997). 인성이 교과목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수(1997). **인성교육의 지침**, 서울: 집문당.
- 서명원(1989). **교육학 대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 에듀윌(2010). **인재경영**, 제 75호.
- 영남이공대학교(2010). **Click! 성공취업**, 영남이공대학교 취업지원처.
- 이원희, 홍기철, 김용조(1999). 초등학교 아동의 정신건강과 인성발달을 위한 심리교육의 이론 정립, **초등교육연구**(13), 105-106.
- 이인재(2000). 한국 청소년들의 인격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탐색-21세기 국민윤리교육의 방향과 전망, 제8회 한·중 윤리학 국제학술회의, **한국국민윤리학회**, 122-126.
- 이인재(2001). 한국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광주전남지회 학술발표대회, **한국국민윤리학회**, 45.
- 이진규(2010). 창외·인성교육 강화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육성과. 7월 2일자 글.
- 이호중(2001). 인성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모(1996).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 한국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10).
- 조연순, 이영(1998), **아동의 세계**, 서울: 양서원.
- 한국교육개발원(1994).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 모형 개발 및 평가 방법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년 교육여론조사**.
- 홍득표(2012). 대학생의 인성교육 강화, 한국대학신문 Daily UNN 2012년 3월 25일자 기고.
- L.A. Hiele & D.J. Ziegler(1981). *Personality Theories*, 2nd, ed. Tokyo:McGraw-Hill, 11-55.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다음사전, <http://dic.daum.net/>
- 인성시대, <http://mediainsung.com/>
- mbc news http://imnews.imbc.com/news/2013/society/article/3228775_12408.html
- 한교닷컴, <http://www.hangyo.com/main/hangyo/>

Abstract

TA Study on the Personality Educational Method of University Students

Park, Se Jeong* · Ko, Kang Ho

Future education that creates new knowledge and value has been the topic as wide range of disciplines and technology are getting fused together in future society. 'Creativity' and 'personality' are the focal points of the future education of discovering and developing potential and desirable values of students. The future growth engine is in 'creative human capital' of thinking and creating something new. In the end, competitive power of nation is the competitiveness of creative manpower, and the end users are demanding for 'honourable professionals' with creativity and great personality. Therefore, cultivation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is an issue which is directly related with individual and national survival beyond the dimension of appropriate education. As creative manpower is considered a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2009 curriculum revision, diversification of schools, and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were the educational reform for preparing and establishing conditions to educate creativity and personality properly. However, schools who attempted diversification are showing a movement of going back to the original and substantial programs for selected students by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are not being operated.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grasp the meaning of proper personality education that society asks for and to grope for the direc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in universities by investigating the personality education that are being conducted in university based on the theory of personality education that came to the fore with failure of moral education and lack of humanity. To this end, this study considered 'what is the actual condi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in university?', 'what is the problem with personality education in university?', and 'what is the effective measures of personality education that need to be conducted in university?' as the research subject.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Personality, Personality Educational Course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Childcare,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